

Whole Truth 온전한 진실

정 범 진 |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법정에서 증인으로 혹은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진술자로 서게 될 경우, 증인 선서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는 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보다 장황하게 서약을 한다.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증언이 진실, 온전한 진실, 그리고 오로지 진실임(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미법 체계에서 혹은 그쪽 문화에서 진실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로는 그저 ‘진실’ 정도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넘어가지만 진실도 구분해보면 여러 가지 양태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

‘화학공학의 여명기였던 1940년대 이후 암 환자의 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이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은 일부 진실(The truth)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진실(Whole truth)은 아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환경이 나빠져서 또는 인스턴트 음식 때문에 암 환자가 늘어나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환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암 환자의 절대적인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으로 환경이 나빠졌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 환자 수가 아니라 인구에 대한 비율이어야 한다.

만일 1인당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면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역시 아니다. 인구 비율로 하더라도 하더라도 연령 분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면 암 환자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령 분포를 고려한 통계 처리를 해야만 할 것이다.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 만일 담배 회사의 적극적인 관측 활동을 통하여 과거에 비하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사무관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연구원
제주일보 논설위원(2002~)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2002~)
미국 플로리다대 교환교수(2007. 1 ~ 2008. 2)

흡연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면 인구 비율에 연령 분포로 가중한 암 발병률의 수치에 흡연 비율의 증가에 따른 가중을 하여야만 환경이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불치의 병이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그 병으로 사망했던 환자들이 더 이상 그 병으로 사망하지 않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저러한 확인된 인과 관계를 따져보면 암은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고 있다. 이것이 Whole truth이다.


그러나 암 연구에 관한 연구 과제의 제안서를 쓰고 관련 연구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가 늘고 있는 편이 유리하다. 또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도 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공학의 여명기였던 1940년대 이후 암 환자의 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여전히 쓰인다. 이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된다.

온전한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이라 주장하면서 태양을 가리려고 한다. 세상은 정의보다는 승패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몇 년 전에 영국방송공사(BBC)는 소아백혈병 환자가 1930년에 비해 늘었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였고 우리나라의 방송사에서도 이를 받아서 보도한 바가 있다. 과연 1930년대의 수치와 현재의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1930년대의 의료 여건에서 영국에서 어떤 아이가 죽었다면 병명이나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인류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고령자가 더 오래 살게 되어서가 아니라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줄은 데 더 기인한다. 현대 의학으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당시로는 치명적이었던 많은 질병을 다 극복하고 나서야 고급스런(!) 소아백혈병에 걸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930년대와 현재의 소아백혈병 환자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과학자로서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다. 그것은 진실이지만 온전한 진실(Whole truth)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부분적인 진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들에 의해 활용된다. 무비판적 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욱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유포된다면 사실을 떠나서 대량 복제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게 되고 온전한 진실이 자리를 잃는다. 

부분적인 진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들에 의해 활용된다. 무비판적 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욱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유포된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량 복제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게 되고 온전한 진실이 자리를 잃는다.